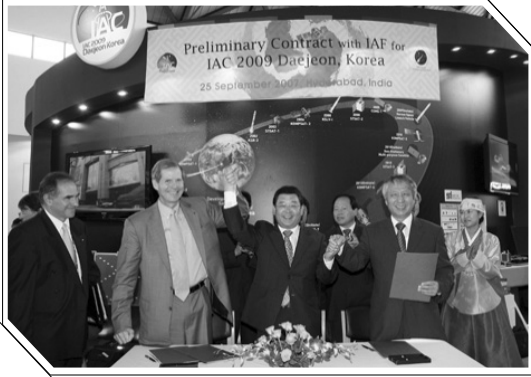


## “2009 대전 IAC 성공개최 확신”



▲ 인도출장 중인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 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IAF 짐머만 회장(사진 왼쪽 첫번째)과 2009년 대전에서 열리는 IAC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 인도 출장 차시장, IAF 국제기구로부터 신뢰 이끌어

오는 2009년 대전에서 열리는 국제우주회의(IAC)가 국제우주항행연맹(IAF) 및 우주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성공 개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리는 제57회 국제우주회의(IAC)에 참가한 박성효 시장은 24일 IAF 총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2009 대전 IAC의 완벽한 대책추진 등을 내세워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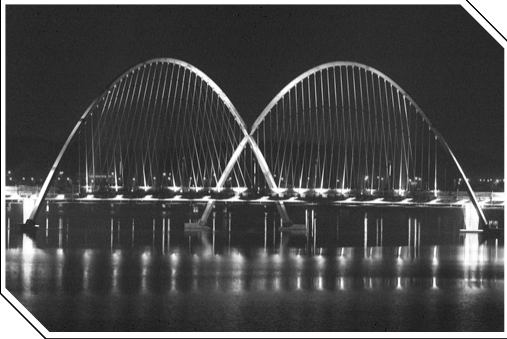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이라는 IAC의 이념과 노력에 힘입어 인류의 평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며 "2009 대전 IAC는 IAC 60주년, 인간 달착륙 4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대회로서 IAC 역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박 시장과 개별면담을 가진 제임스 짐머만 IAF 회장은 2009 대전 IA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짐머만 회장은 "지난해 스페인 대회에서 2009년 대회의 대전 확정은 가장 잘된 결정"이라며 "대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행사 이튿날인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IAF와의 계약서 서명식에서 박 시장은 긴밀한 협조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짐머만 회장은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의방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IAF 관계자들은 2009 IAC 개최의 성공은 물론 전시관 운영면에서도 차기 개최지인 영국 글라스고우(Glasgow)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 2009 IAC의 성공적 개최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데라바드 전시관에 마련된 한국홍보관에서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태극부채 및 IAC 2009 엠블럼이 새겨진 책갈피 등의 기념품들을 큰 인기를 모았다.

## 대전을 중심으로 한 명품관광코스 개발



▲ 대전을 주축으로 대전 인접 시·군인 옥천군, 영동군, 논산시 관광지를 연계한 명품관광코스가 개발될 전망이다.

### 대전+G9, 시·군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 나서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연계한 명품관광코스가 개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전 + G9 인접 시·군관광담당협의회가 열려 상호 공동 협조하여 대전광역생활권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하게 된다. 이번 관광코스 개발에 참여하는 시·군은 대전시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의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등 대전+9개 지자체들이다.

이들 대전+G9은 시·군이 주기적으로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광명품 주제별, 지역별 차별화 된 새로운 관광자원과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지역 축제 및 이벤트 행사 공동 참여 지원하는 등 적극 활성화하게 된다. 이번에 개발한 관광코스로는 대전 5개 권역, 광역권 8개 권역 17개 코스를 개발 우선 각 기

관대표 홈페이지 및 전국 여행사 참여 홍보, 충청권 공동안내 발행 책자에 게재 홍보하기로 하였다.

### 대전시 및 시·군에서 추천하는 주요 관광 명승지

· 대전시 : 정부대전청사내 홍보관, 천연기념물센터, 첨단과학관, 이용노미술관, 시립미술관, 화폐박물관, 지질박물관, 한말수목원, 뿌리공원, 우암사적공원, 대청댐 등

· 청원군 :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운보의 집, 상수허브랜드, 보은군은 속리산, 솔향공원, 선병국가옥, 서원리소나무, 옥천군은 정지용생가 및 문학관, 육영수 생가지, 농심테마공원, 금강유원지, 장계관광지, 여토도에 체험관 등

· 영동군 : 물한계곡, 와인코리아, 난계사, 난계국악박물관, 송호국민관광지, 공주시는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산림박물관, 공산성, 박동진 판소리, 지당세계박물관 등

· 논산·계룡시 : 계룡시 은농제, 계백장군 유적지, 관촉사, 강경젓갈단지, 수락계곡, 탐정호, 해송공예, 금산군은 칠백의 충, 금산약령시장, 적벽강 대장금 촬영지, 연기군은 교과서박물관, 봉산향나무, 고북군립공원, 비암사, 송파랜드, 금사가마골, 행복도시건설현장 등.

## 외국인 유학생 전용 보금자리 마련



▲ 국내 첫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모습

### 대전의 국제화 ·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기대

세계 각국에서 대전으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7일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 기숙사 가문을 열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숙사 이름은 '누리관(Nuri Hall)'. 대전시와 지역의 8개 대학이 공동출자해 226실 450명 수용규모로 건립됐다.

누리관 개관은 대전에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유학생 역조 현상의 완화와 지역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숙사는 9월 5일 현재 200여명의 학생들이 입주했으며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입국이 늦어진 학생들도 9월 말까지는 모두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출자한 8개대학 외 지역내 타대학에서도 입주가능여부를 문의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2인 1실로 운영되는 누리관의 월 사용료는 현재 대전지역내 대학교의 기숙사비 보다 20% 저렴한 수준인 월 10만원으로 특히 방학기간에도 기숙사를 닫지 않고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 학생을 감안하여 1:1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중국, 동남아 출신임을 감안,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공원과 꿈돌이랜드의 파트타임 취업과 최근 외국어 수학 열풍에 맞추어 영어, 중국어 등 현지인 어학교습 등 아르바이트 알선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대학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누리관과 학교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복 누리관 관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누리관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대학과 협력을 도모하여 대전이 유학하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로봇, 교육현장에 진출하대’



### 스타로봇 ‘티로’ 어은초등학교 1일교사로

로봇이 인간사회 초등학교 1일교사로 나선다.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이 10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8월 대전시로부터 명예시민로봇으로 위촉됐던 ‘티로’가 생활현장 곳곳에서 대전시의 로봇산업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특특한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한울로보틱스 사내커플 결혼식 사회를 시작으로 대전시의 각종 행사 진행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교사보조로봇 ‘티로’가 본업인 교육현장 활동을 시작한다. 로봇 티로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유성구 어은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1시 20분부터 50분간 실제수업을 진행한다.

학습도우미 로봇 ‘티로’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공공서비스 로봇으로 이미 각종 행사 등의 사회를 보면서 기능과 성능이 검증돼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

대된다.

초등학교 학습보조 및 교사도우미 로봇 시스템은 로봇전문기업인 (주)한울로보틱스를 비롯한 4개 기업과 KAIST와 한밭대학교 등 4개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했으며, 현 교실내의 교사용PC와 빔프로젝션TV에 학습도우미 로봇과 서버컴퓨터, 학생가정의 홈PC가 네트워크로 연결,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학교교육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대전에는 현재 80여개의 로봇기업을 비롯한 8개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삼성중공업연구센터 등 산학연에 걸쳐 많은 연구기관과 개발인력이 풍부해 앞으로 대전의 생활현장 곳곳에 로봇이 단골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창조도시 대전’을 창조한다



▲ 과학과 예술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창출해 젊고 개성있는 '창조도시 대전'을 만들자는 도시발전 모델이 제시됐다

### 상상력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행복한 도시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기기에 좋은 '창조도시 대전'이 만들어진다.

민선4기 대전의 비전으로 과학기술도시, 최적의 자연환경, 지리적 조건, 인재의 보고 등 대전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질적가치가 풍부한 창조도시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대전이 나아가야 할 좌표가 새롭게 설정되고 창조도시 대전만들기를 위한 5개 중점과제를 마련, 추진체계 구성에 들어간다.

우선, 중앙로 주변이 도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보고 대전역에서 충남도청에 이르는 1.1km의 횡축과 종축의 거리를 사람중심, 문화예술중심으로 재편할 전망이다.

내년도를 창조도시 원년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관련 실·과장 및 대전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100일 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창조도시 추진본부, 창조도시포럼 등을 구축해 연말까지 최종계획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창조도시 대전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정점으로 하는 과학도시 브랜드와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대전형 창조산업 부족, 신도심과 구도심권과의 네트워크 결여, 대중예술활동과의 연계 부족 등 창조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 창조도시로의 방향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신선히다는 평가이다.

창조도시는 90년대 중반부터 도심재생전략의 일환으로 도시의 위기를 과학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콘텐츠로 극복하려는 개념으로 21세기 도시발전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 제시된 중양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상도